

NPO활동으로 보람 있는 후반인생을

강창희 소장의 '투자 사랑방'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장 겸 한국해비타트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식 회장은 7년전까지만해도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였다. 이분은 푸르덴셜투자증권 부회장을 끝으로 38년간의 금융인 생활을 마치고 2004년 한국해비타트의 상근이사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NPO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NPO란 non-profit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민간 비영리 조직' 또는 '비영리 활동'등으로 번역한다. NPO에는 '비영리'의 의미뿐만 아니라 '비정부(nongovernment)'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할 경우에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NPO 활동과 단순한 자원봉사(volunteer) 활동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100% 무보수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NPO 활동은 약간의 보수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시간당 적정임금수준이 5,000원인데, 2,000원을 받고 일을 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3,000원만큼은 자원봉사로 본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원봉사로 하더라도 100% 무보수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서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장기간 활동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다. 현재 미국에는 200만개 정도의 NPO가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취업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NPO 활동이 일반화 되어있는 것이다.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실시한 「미국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후 자원봉사활동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0% 정도에 이르는 은퇴자들이 공식·비공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은퇴 이전에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O는 원래 정부의 손이 닿지 않거나 민간기업이 채산성 관계로 손을 대지 못한 분야를 무대로 해서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NPO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단순한 자원봉사의 영역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단계로 까지 바뀌었다.

기업은 제1의 경영목표를 이익추구에 두고 그 다음으로 고용확대, 사회공헌 등을 실현하려고 한다. 반면에 NPO는 제1의 목표를 사회공헌에 두면서 고용 창출과 이익 확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NPO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정부·민간과 더불어 제3의 경제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정년퇴직자 뿐 아니라 대학 졸업자들의 NPO 진출도 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직업란에 보면 NPO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1990년에 발생한 코오베 지역의 대지진 피해를 계기로 NPO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을 제정·시행한 것이다. NPO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의료,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재난구호 등 17개 분야에서 비영리 활동을 하고자할 경우 10명 이상의 참가자만 있으면 기본 재산이 없더라도 간단한 수속을 거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물론 NPO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일본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법인격을 갖고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 다만 이들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설립 시 상당한 금액의 기본 재산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규제로 인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계기는 1995년에 고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이었다. 대지진 발생 후 재해 복구 작업을 하는데 정부와 전통적인 공익 법인들은 이렇다 할 공헌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물뿌리 NPO' 또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눈부신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그런 상황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정책 당국, 학자, 정당, NPO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 만들어낸 것이 바로 NPO법이다.

NPO가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신용도도 높아진다. 수탁사업, 정부보조금, 기부금 등을 받거나 공적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쉬워진다. 이런 이유로 금년 5월 말 현재 법인 인증을 받은 NPO가 4만 1,263개에 이를 정도로 설립이 붐을 이루어 왔다. 2~3년 전부터는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설립주체로 참여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활동 분야를 보면 보건·의료·복지 관련이 36%, 환경보전 11%, 문화·예술 11%, 지역발전 10%, 아동건강육성 9%, 사회교육 6%, 국제협력 4% 등으로 되어있다. NPO지원을 사업으로 하는 NPO도 전국에 322개나 있으며, 금융NPO의 설립도 늘고있다. 환경, 사회적사업, 지역진흥 등의 비영리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NPO Bank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NPO의 기본 재산은 500만 엔(약 6,500만 원) 미만인 전체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설립에 따른 자금 부담은 그리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서 서점에 가보면 <NPO 입문>, <NPO 법인 만드는 법>, <NPO 경영>, <NPO 경제학>, <NPO금융>등의 관련 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년전부터 현역에서 물러난 전문가들이 NPO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에 소개한 이창식 회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회장과 한국해비타트와의 인연은 이 회장이 1980년대 초반에 한 자원봉사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비타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해주는 일을 하는 NPO로, 1976년 미국의 젊은 변호사 밀라드 풀러(Millard Fuller)부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세계 100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는 1994년에 설립되었다.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한국해비타트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관계로 이 회장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 겸 후원자로 참여한 것이다. 그 후 1997년부터는 이사로, 은퇴 후인 2005년 부터는 상임이사 겸 회장으로 일해오다가 지난해에는 해외원조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까지 선출된 것이다.

이 회장은 현역시절부터 틈나는 대로 봉사에 참여하고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한국해비타트 회장이 될 수 있었던 토대였다고 말한다. 또한, 오랫동안 금융회사 CEO를 맡았던 경험이 한국해비타트 활동에 경영마인드를 도입시키는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한국해비타트에는 이회장 외에도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은퇴자들이 많다. 상근직원 50명 중 10명이 은퇴자들이다. 전직 또한, 건축설계사무소장, 건설시행사 임원, 대기업 계열사의 홍보담당 간부, 은행준법감시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은퇴자들을 고용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도 안정적이다. 30, 40대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들어왔다가도 금방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다. 책임감 또한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 은퇴자들은 NPO활동을 생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해비타트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는 봉사자들에게는 교통비로 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한다.

선진국의 예를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NPO활동은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이 커지고 사회가 성숙하면 NPO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본생활비 정도는 걱정이 없는 은퇴자들이 약간의 수입을 얻으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직장인들이 현역시절에 쌓은 전문성을 후반인생에서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평생현역'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